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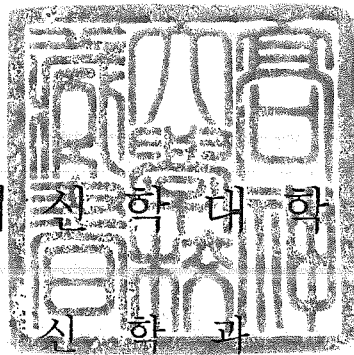
CT
230.42
Z6ABx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칼빈의 이해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 유 해 무

고 려 신 학 대 학 원



조 영 호

1998 학 년 도

 고신대학교



DM00004954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칼빈의 이해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유 해 무

이 논문을 석사과정 논문으로 제출함.

1998년 12월

고려신학대학원

신 학 과

조 영 효

조 영 효의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1998년 12월

목 차

I. 서론	2
A. 연구의 목적	2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II. 청교도에게서 다루어진 "신자의 두려움"	6
A. 칼빈신학의 청교도적 변형	6
B. 청교도들의 중요한 주제	6
1. 회심의 경험으로서 겪는 두려움.	
2. 일시적인 버려짐에서 오는 신자의 두려움	
C.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청교도 이해의 평가	-11
III. 칼빈이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게 되는 배경으로서의 로마교회의 주장	13
A. 고해(告解)에 대한 스콜라 학파의 교리.	13
1. 스콜라 학파의 회개론	
2. 고백(confession) 및 보속(satisfaction)에 관련된 유해한 관습들	
B. 면죄부와 연옥에 대한 그릇된 교리	17
1. 면죄부교리 비판	
2. 연옥교리 비판	
I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	20
A. 기독교론적 접근	21
1.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음	
2. 속죄주(Redeemer)의 직분을 이루신 그리스도.	
B. 구원론적 접근 (성령론적 접근)	25

1. 믿음	
2. 회개	
3. 믿음과 말씀의 관계	
C. 예정론적 접근 -----	29
D. 성화의 단계로서의 "신자의 두려움" -----	32
1. 믿음의 불완전성	
2. 신자가 믿음의 영역에서 갖는 두려움	
3. "신자의 두려움"의 원인	
3. 고후 7:11에 제시된 회개로서의 두려움	
4. 빌 2:12에 제시된 신자의 삶의 자세로서의 두려움	
5. 올바른 두려움에 대한 이해	
V. 결론 -----	41
참고문헌 -----	43

I. 서론

A. 연구의 목적

칼빈은 신학을 교회의 덕성함양을 위해 고안된 실제적인 학문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철저히 인격적인 관계를 성경말씀에 비추어 설명하였다.¹⁾ 칼빈 이후의 칼빈주의 신학은 더욱 정교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이론적으로 바뀌어져 갔다. '칼빈주의'하면 머리에 예정론을 떠올리게 된다. 예정론논쟁과 같은 사색적, 사변적성향은 칼빈주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다. 그러나 정작 칼빈 자신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빛만을 쫓아갔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갖고 있다. 실천적인 모든 모델들을 성경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특별히 상담학분야에서 성경에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그만큼 다양하고 더욱 복잡한 정신적인 상황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별히 정신적인 압박감과 사회적 급변과 문화적 일탈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기타의 중요한 기관들이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칼빈을 다시 발견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심리적 치료는 극히 제한적이다. '신자로서 격는 심리적 변화'는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관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칼빈은 신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발견하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칼빈은 신인식의 도구로서 전적으로 성경에 의존하고 있다. 기독교장요 3권 6장에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내자와 교사로서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칼빈이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한 믿음의 차원에서 '신자의 두려움'을 다루려고 한다. 이것은 성경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20.

리를 다루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는 본 논문의 주요한 연구인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는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먼저 칼빈에게 있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론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있고 구원의 기초는 기독교론에 근거하여 이것을 다룰려고 한다. 그리고 구원론적 접근³⁾과 예정론적 접근⁴⁾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보다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원인’을 살펴보고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다루고 있는 신자가 믿음의 영역에서 갖는 두려움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고후 7:11과 빌 2:12에서 칼빈이 다루고 있는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칼빈의 주석을 비중있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신자가 겪는 믿음의 영역에서 갖는 두려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먼저 1차자료로서 「기독교강요」(1559) 최종판을 주로하여 사용하고, 2차자료로서 「기독교강요」를 다시 설교하고 연구한 것을 참고하려고 한다.

3) ‘구원론’은 좁은의미에서 ‘성령론’에 속한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성령론에 대한 특별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자의 구원의 적용에서 성령의 사역을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다. “성령의 사역이란 본질상 성부/성자의 교제속에서 나타나며, 그런 교제속의 사역으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다. 이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사도신경적 배경이다. 성령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기여이다. 믿음이 없는 성례는 아무것도 중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요 신뢰인 신앙이 바로 성령의 주요 사역이다.” 유해무, 「개혁교의학」, <VI 성령론의 구성> pp392-395을 참조하라.

4) 예정론은 칼빈이 예정론을 「기독교 강요」에서 다루고 있는 목차의 위치를 살펴볼 때 예정론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3권의 믿음과 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난후 예정론을 서술하고 있다. 결코 칼빈은 ‘예정론’을 ‘신론’의 일부로 삼지 않았다.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예정의 분명한 의도만을 나타내려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op. cit., John H. Leith. 137.

II. 청교도들에게서 다루어진 "신자의 두려움"

A. 칼빈신학의 청교도적 변형

우리는 먼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기 이전에 청교도들에게서 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교도와 칼빈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칼빈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한 사람의 체계를 따르는 것을 경계하였고 아마 단순히 “성경주의자”로 알려지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점들에 있어 칼빈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칼빈주의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로 무리 없이 그들을 칼빈주의자로 칭할 수 있다.⁵⁾

칼빈이후에 이 주제는 청교도들에게서 더욱 발전되었고 심화되었다. 청교도들의 인간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칼빈은 부패한 인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인간을 살펴보고서 철저하게 부패되었고, 악하고, 무가치하고, 멸시와 저주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청교도 성도의 자아 개념은 거의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도 낮았다. 현존하는 수많은 당시의 일기들은 개인적인 죄와 결함에 대한 강한 의식과 영적 자기 반성(self-examination)의 실천을 증언한다. 자기 반성의 목적은 가능한 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었다.⁶⁾ 이러한 청교도의 인간관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두려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B. 청교도들의 중요한 주제

청교도 목사의 상담사역은 대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나 아직 회심하지는 않았으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자들, 구원의 길에 관해

5) Allen Carden, *Puritan Christianity in America*, 청교도 정신, 박영호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 59. 이 책에서 청교도 신학의 주제로서 “인간의 본성, 죄, 그리스도, 언약, 기록의 추구, 도래하는 그 나라”를 다루고 있다.

6) Ibid., 60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도와주는 일을 포함한다. 이 일의 첫번째 대상, 즉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중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한가를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⁷⁾ 이 주제를 두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회심의 경험으로서 겪는 두려움.

청교도 신학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특별한 열쇠가 되는 구성요소들을 주장했다.⁸⁾ 그러한 구성요소 중 하나가 회개였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회심은 아주 격렬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을 아주 비참하고 낮은 위치에 둠으로써 오는 청교도의 신학적 특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의 특별한 고투를 수반한다. 중생하지 않은 자의 삶 가운데서 구원얻는 믿음의 전개를 청교도 목사 조시아 플린트는 이렇게 말했다.

“죄인은 자신을 불쌍하고 비참하고 멸망할 피조물로 생각하고 느낀다.....그는 자신이 범법자라는 것을 깨닫는다.....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 심이 자신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느낀다.....이 사실은 그에게 자신의 죄가 비통하도록 만든다. 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이 상태에서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이 거한 곳에 자신의 멸망의 당위성이 있는 것을 본다.... 이제 그는 이 궁지에서 자유를

7) Peter Lewis, *청교도 목회와 설교*, 서창원 역 (서울 : 청교도 신앙사, 1991) p 122 청교도들이 신자가 겪는 격심한 두려움과 혼란을 이책은 아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서 서술하려고 한다.

8)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과정은 먼저 말씀과 성령, 회개의 경험, 믿음으로 발전되어 질 수 있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은 의심할바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설교되는 동안 죄인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하신 것으로 묘사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둘은 항상 동시적이며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존 카튼은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역사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활력의 능력이다”라고 했다. Allen Carden, *청교도 사상*, pp106-107에서 재인용.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하고자 한다.....그는 세상과 세상 만물의 허무함을 본다....그는 자신의 노력의 불충분성을 본다.”9)

청교도 목사들과 설교가들은 회심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오는 ‘고통’을 거듭남의 필수적인 한 과정이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진리의 빛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 변화의 징표이며 영적체험으로 간주하였다.10)

칼빈은 회개를 가리켜 “육신을 죽이며(mortification) 영을 살리는 것(vivification)”이라고 표현했다. 이 점을 좀더 확정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죽인다’(mortification)는 말은, 우리가 처절하게 성령의 검에 의해 살해되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이르게 되며 또한 경건의 초보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자녀 하나로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너희의 일반적 본성들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11)

9) Ibid, p 109

10) Ibid, p 125

11) Inst., III. iii. 8. 이부분은 안토니 A 후크마의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그가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후크마는 회개를 세부분으로 분리해서 설명한다. 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이다. 그는 지적인 측면에서, “참된 회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성을 아는 지식을 포함하며 마땅히 우리 자신의 죄와 죄책을 인정하는 일과 고백하는 인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죄를 기꺼이 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자비하심에 대한 이해를 수반해야 한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지식이 없이는 공포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 211 이말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측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가 다루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실존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지식이 가져다 준 “두려움”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두려움”을 다루고 있다(고후 7:10).

2. 일시적인 버려짐에서 오는 신자의 두려움

청교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에게 찾아 오는 영적침체를 다양한 형태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두려움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버려짐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받은 영혼들을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먼저 정립되어야 할 사항은 타락하거나 비밀스런 죄를 지었거나 믿음이 거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방치됨을 당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영적 침체와 버려짐의 원인들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세가지 주된 제목으로 분류하였다. 성령, 우리의 심령 그리고 사탄이다.¹²⁾ 여기서의 우리의 심령을 살핌으로서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청교도의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토마스 구드윈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고통과 어둠의 원인이요 조성자라는 사실에 놀란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속에는 많은 약점과 결점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고 우리를 생생한 위로로 뒤받침해 주는 그의 임재하심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이윽고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것은 대개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는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1) 정신적인 침체상태

청교도들에게서 정신적인 침체란 ‘우울증’(melancholy)으로 알려졌다. 리차드 박스터는 영적인 것과 구별하여 자연적이고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결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그러한 정신적 침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2) Peter Lewis, 137

“슬픔과 고통의 감정들은 종종 맑고 건전한 이성의 사용을 뒤집어 놓습니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는 인간의 판단은 방해 받으며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의 판단은 신뢰받을 수가 없습니다. 맹렬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처럼, 마음속에 공포와 커다란 고통속에 있는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그의 걱정애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하여, 그 자신의 영혼과 행동들에 대하여, 그의 친구들과 원수들에 대한 그의 판단은 왜곡될 것이며 대개는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¹³⁾

청교도 목회자들이 정신적인 침체상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일부 건전한 심리적인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 특히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침체 사이에 차이점을 그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2) 성경에 의하여 정립되지 않은 거짓된 이성들

토마스 구드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립되고 규제받지 못한 인간의 이성은 회심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심 이후에도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부적절하고 위험한 안내자이다. 또한 이성은 종종 영적 침체와 영적 버림 상태를 유발시키는 것이다’라고 예리하게 분석하였다.¹⁴⁾

“진정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말씀을 건고하게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듣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육적인 이성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견해를 집어넣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많은 거짓된 논리들을 형성하며 도입시키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와반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안에 복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당한 양의 육적 이성의 모든것은 이미 시작한 믿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강한 반대자로서 점점 솟아나오기가 쉽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그릇된 적용으로 말미암아, 특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13) Richard Baxter, Cripple Gate Exercises, vol 3, p. 255-6, 「청교도 목회와 설교」에서 재인용.

14) Peter Lewis, 173.

손길을 잘못 표현케 함으로서 그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에 모순되는 독단적인 결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속을 거닐 때에 감정과 이성으로 말미암아 종종 오도되며,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말씀보다는 그들이 보고 느끼는 일이나 제도에 의하여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¹⁵⁾

인간 이성의 바른 위치에서 인간의 이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성은 계시 안에서 말하고 있는 보다 승고한 이성에 종속되었다.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앞설 때, 이성이 인간으로부터 우월권을 박탈한 바로 이 상황이 영적 침체나 고통의 때에 가장 흔히 벌어지는 현상이다.

3) 성경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인간의 감정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화되지 않은 이성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나온 발자취를 배나 더 되돌아 보게 한다. 그리고 그의 회심 전의 이성은 그의 거짓된 독선을 칭찬하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그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의문시하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화되지 않은 감정들은 전에는 그를 믿고 끝도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팔아 넘기더니 이제는 종종 알지 못하는 공포심을 자아내는 것이다.¹⁶⁾

C.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청교도 이해의 평가

칼빈이 영국에 소개되고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베자의 공로이다. 그러나 베자의 신학적 영향력은 교회론과 구원론에 걸쳐 칼빈의 견

15) The Work of Thoma Goodwin, D.D., 12 vols. Nichol edition, 1861-66, vol. 3, p. 250, 「청교도목회와 설교」에서 재인용.

16) Peter Lewis, 174. 대부분의 청교도 저자들은 감정적인 요소를 사탄이 이용한다고 말한다. 사탄이 성도의 양심이나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으나 사람의 본래적인 성격이나 처해있는 환경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릇된 제안과 더불어 간접적으로 두려움과 침체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p 194

해에서 더욱 진보하였고 넘어선 것이었다. 베자의 이런 영향은 영국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에게 끼쳤다. 퍼킨스의 신학은 타락전 선택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단지 버림받은 영혼일 가능성을 두려워 하도록 했다. 이것은 칼빈에게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 여부를 의심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했는데 비해, 베자는 자신들의 성화를 바라보게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성화 상태를 검증함으로써 그의 선택 여부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칼빈과 베자-퍼킨스 전통간의 차이점을 신속히 간파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칼빈과 베자의 차이점은 칼빈은 신앙의 대상과 확신의 근거를 일치시켰음에 비해(그리스도의 죽음), 베자는 신앙의 대상(그리스도의 죽음)과 확신의 근거(성화)를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베자의 견해로는 사람은 그가 자기의 성화로부터 충분한 확신을 얻기까지는 자신있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만일 피기우스가 내가 선택받았음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일천 증거보다 낫다고 대답하겠다.”고 확인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확신하였다.¹⁷⁾

청교도의 전통은 칼빈의 전통에 서있다. 그러나 더 분명히 말하자면 베자의 전통에 서있다. 이러한 영향은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스콜라주의 성향과 경건주의적 성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뿌리는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를 얻는데 결정적이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강조된 것은 성화의개념이다. 성화는 신자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강조가 이루어 지게 된 것은 예정론에서 왔다. 칼빈이 예정론에서 인정한 한계를 훨씬 넘어선 전제에서 청교도들의 신학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을 통해서 역사적 이해를 갖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학적 전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칼빈은 성화와 경험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칼빈은 신자가 격는 두려움을 삼위

17) W. Stanford Reld, edited by,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이훈영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244-251.

하나님의 사역과 신실성에서 찾고 있다. 그는 오히려 신자의 구원의 확실성을 더욱 강조하는 과정에서 믿음과 지식의 관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칼빈의 견해를 좇아가는 것이다.

III. 칼빈이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게 되는 배경으로서의 로마교회의 주장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독교 교리들을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성도들이 성경에 쉽게, 그러면서도 걸려 넘어짐이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하기위함이었다. 둘째는 프랑스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비난을 성경적으로 논박하는데 있었다. 이런 목적은 기독교강요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3권에서 믿음과 회개에 대한 부분에서 로마교회의 교리를 상당한 지면에 걸쳐서 비판하고 있다. 곧 로마교 교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오류의 핵심은 '구원론'임을 보여주고 있다.¹⁸⁾

A. 고해(告解)에 대한 스콜라 학파의 교리.

1. 스콜라 학파의 회개론¹⁹⁾

스콜라학파의 회개에 대한 정의를 칼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18) “은혜는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행위의 총체이다. 그러나 이 은혜가 어떻게 인간에게 오며, 인간과 은혜의 관계가 어떠하며, 인간이 어떻게 변하느냐 등이 로마교 ‘은혜론’이 추구하려는 문제이다” 또한 “로마교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측면보다는 인간과 그의 자질이 관심의 대상이다. 즉 인간의 본성, 본질에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은혜의 수혜를 준비한다..... 여기서 은혜는 구원 역사적인 죄의 극복의 의미가 아니라 무죄한 상태의 순수본성(natura pura)에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죄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 관점에서 본성과 은혜를 말한다.” 이것은 로마교 구원론 교리의 근원을 잘 요약설명해 주고 있다. 유헤무, 481,485.

19) 스콜라학파는 로마교회의 교리의 기초를 놓았다.

“회개는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해 우는 것이며, 울어야 할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며, 과거의 악행에 대해 통곡하는 것이고 통곡할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를 친히 징벌하는 일종의 슬픔어린 보복이며, 자기가 행하였거나 동의한 악행에 대한 심령의 슬픔과 영혼의 쓰림이라는 것이다.”²⁰⁾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그들은 외면적인 훈련을 너무 집요하게 주장하므로 그들의 방대한 책들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다만 회개가 육체를 길들이고 과오를 징계하고 징벌하는 데 유익한 일종의 엄한 고행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통회(constriction)와 성찰(attrition)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한다. 또한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여러 가지 근심으로 괴롭히며, 고뇌와 번민에 잠기게 한다. 그러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볍게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모든 쓰라림을 치료한다. 그들은 회개를 교묘하게 정의하여 마음의 통회와 입술의 고백과 행위의 만족으로 나눈다.”²¹⁾

칼빈은 스콜라학파가 회개를 육체를 길들이는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런 육체의 훈련의 과정은 일차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다. 더욱이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스콜라 학파의 회개론은 교묘한 속임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칼빈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며 죄를 더욱 싫어하며 미워하도록 조심스럽고도 예리하게 권해야 한다고 한다. 죄에 대한 정당한 통회를 수용하면서도 그는 그 한계에 있어서 부정적이다.

“누가 감히 자기의 죄로 인해 통곡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노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양심은 장시간 자기와 씨름하며 오랜 싸움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킬 때도 설만한 피난처를 여전히 찾지 못한다. 따라서 양심은 자신을

20) Inst., III. 4. 1

21) Inst., III. 4. 1

조금이라도 평은케 하려고 슬픔과 눈물을 억지로 짜냄으로써 통회를 시도하려고 한다.”²²⁾

이러한 스콜라 학파의 주장은 로마교회의 역할을 크게 증대시킨다. “로마교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상실될 수 있고, 고해성사의 성례로 재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닌 구원 중재역할이 이 부분에서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복음은 새로운 율법이 되어 명령도 하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준다. 그러나 이 힘은 사실상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에 의하여 주어진다.”²³⁾

칼빈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결론적으로 못박아버렸다.

“그들은 회개의 세 가지, 즉 심령의 통회와 입술의 고백과 행위의 보속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 세가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만일 신앙의 전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을 얻는 문제이다. 즉, 무슨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얼마나 쉽게 또는 얼마나 어렵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양심은 안식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으며, 확신이나 안정을 가질 수 없다. 도리어 양심은 끊임없이 떨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동요하고, 증오하며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다.”²⁴⁾

22) Inst., III. 4. 2.

23) 유태무, 485

24) Inst., III. 4. 2. 칼빈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초는 개인의 주관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먼저 구원얻는 신지식을 갖는 것이다. 칼빈이 스콜라학파를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그들이 구원얻는 신지식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청교도들과 칼빈을 비교해 볼 때 청교도들은 스콜라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들도 구원얻는 표징으로서 스콜라주의적 회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구원얻는 신지식에 의한 두려움과 떨림을 증거하고 있다. 청교도들이 주관적이라면 칼빈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고백(confession) 및 속상(satisfaction)에 관련된 유해한 관습들
 로마 카톨릭교회의 신학자들은 “양성”의 모든 사람이 분별 연령에 도달하는 즉시 자기 모든 죄를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자기 사제에게 고백해야 하며,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겠다는 굳은 의도가 없다면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회가 제공될 때에 이러한 의도를 실행하지 않으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들앞에 닫힌다고 한다.²⁵⁾ 그러나 그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단순히 그들은 누가 매이고 누가 풀릴 것이며, 누구의 죄가 용서를 받으며 누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가를 선언하는 것이 사제의 직무라고 한다.²⁶⁾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은 회개하는 사람이 과거의 악행을 그치고 행실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며,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죄를 보속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눈물과 금식과 행위 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방법들로 우리는 주의 노여움을 풀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죄를 용서하셨지만, 공의의 징계에 의하여 형벌을 집행하신다. 보속에 의해서 충족되어야 할 것은 이 형벌이다. 이 모든 말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행위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공로를 죄를 범한 데 대한 값이 지불되어 하나님의 공의에

25) Inst., III. 4. 15.

26) Inst., III. 4. 15. 칼빈은 여기에 대한 그의 태도와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법은 사람들이 강요한 것이 분명하므로, 나는 그것이 악법인 동시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황에서 공포된 법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그의 말씀에 붙들어 매셔서 사람들의 권세에서 풀어놓으려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길 원하신 일을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될 때, 나는 그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죄용서에 있고 이 죄용서는 하나님께 있어 가장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큰 곳에서는 가련한 영혼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뜨리고, 냉담한 곳에서는 공허한 잠언으로 달래어 사람들의 태만을 조장한다.” (Inst., III. 4. 25)

대한 보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²⁷⁾ 정리하면 그들은 죄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에 단 한번있는 일이며, 세례받은 후에는 보속을 통해서 다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다.²⁸⁾

그들은 벌과 죄를 구별한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죄가 용서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죄가 용서된 후에도 하나님의 의가 갚을 것을 요구하는 벌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보속은 면제받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⁹⁾

B. 면죄부와 연옥에 대한 그릇된 교리

1. 면죄부교리 비판

이 보속교리의 절정은 ‘면죄부’(indulgences)에서이다. 칼빈은 이 면죄부가 중세시대의 영적 오류와 암흑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면죄부가 그토록 오랫동안 공격을 받지 않았으며, 무제한적이고 광포한 방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수백년동안 얼마나 짙은 오류의 암흑 속에 깊숙히 빠져 있었는가를 잘 입증한다.”³⁰⁾

“이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교회의 보고”(treasury of the church)라고 부른다. 그들은 이 보고의 최고 관리권이 로마주교에게 위임되었고, 로마 주교가 이 심히 위대한 은혜의 분배를 주관하여 직접 분배하기도 하며 분배하는 일을 타인에게 위임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³¹⁾

27) Inst., III. 4. 25. 이에 대한 칼빈의 응답은 값없이 주시는 죄용서를 제시한다. 용서는 다름아닌 순수한 관용의 선물이다. 로마카톨릭의 교리는 결국 용서를 보속의 결과로 보고 있다. 오늘날 교회안에서 양극단에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용서와 위로를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증거하는 경향과 값없는 용서를 증거하면서도 용서와 보속을 통한 공의의 만족을 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경건주의적 청교도들의 영향에서 이런 성향을 볼 수 있다.

28) Inst., III. 4. 26.

29) Inst., III. 4. 29. 여기에대한 증거는 뒤에서 충분히 다룰려고 한다.

30) Inst., III. 5. 1.

”순교자들은 죽음으로써 자신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공로를 세웠다. 그들의 공로는 너무 많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넘쳐 흐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은 자기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와 섞었다. 그리고 죄의 용서와 보속을 위하여 교회의 보고가 이 섞인 피로 구성되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고 한 말은 이런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면죄부의 기원에 대해서 말한다. “이 악폐는 이전에 참회자들에게 명령된 보속이 견딜수 없으리만큼 엄격했기 때문에 생긴 듯하다. 참회자들은 그들에게 부가된 무거운 고행에 눌러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완화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허락된 사면이 ”면죄“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그들이보속을 하나님과 관련키시고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을 구속하기 위한 보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면죄부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우리를 석방시키는 속죄수단으로 변형시켰다.³²⁾

2. 연옥교리 비판

연옥설은 보속설에 근거해 있다. 연옥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죄에대한 보속을 치른다는 뜻이다. 칼빈은 연옥설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속죄를 구할 때나 보속을 다른데서 찾을 때에 침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소리로 젓먹던 힘까지 다 내어 연옥석은 사탄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거짓 말이라고 외쳐야 한다. 연옥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며, 하나님의 자비에 참을 수 없는 경멸을 가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집으며 파괴시킨다.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들의 죄에 대

31) Inst., III. 5. 2.

32) Inst., III. 5. 5.

한 유일한 보속과 유일한 속죄와 유일한 정화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연옥은 그리스도에 대한 끔직한 모독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³³⁾

로마카톨릭 교도들은 마태복음 5:25-26; 12:32; 빌리보서 2:10; 요한계시록 5:13; 고린도전서 3:12-13,15등과 같은 성경구절들을 내세우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은유적 해석은 전적으로 거짓되고 틀려있다.³⁴⁾ 성경자체에 의하면, 죽음은 파멸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한다. 이는 이후로는 그들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다(계 14:13).³⁵⁾ 어거스틴이 또한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며, 죽은 후에 안식을 누릴만한 자격이 있는 자마다 그 안식을 받아누린다고 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죽자마자 곧 복된 휴식을 즐긴다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³⁶⁾ 따라서 로마 카톨릭 연옥교리가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뿐더러,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칼빈은 로마카톨릭의 교리가 얼마나 복음의 순수성과 거리가 먼가를 다루고 있다. 결국 로마교는 미신적인 저주를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지식과 양심이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교회앞에 굴종에 의해 길들여진 무지를 ‘믿음’이라고 칭한 것이다. 칼빈은 신자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는 신자의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불완전성과 맹목성³⁷⁾, 오류들을 인정하고 있다. 인

33) Inst., III. 5. 6.

34) Inst., III. 5. 7-10.

35) Inst., III. 5. 10.

36) Inst., III. 5. 10.

37) 칼빈은 엄밀히 말해 아직 신앙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그러한 믿음을 맹목적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초보적인 원리조차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 자들”이라고 불리운 것이 분명하다.” 칼빈은 이러한 류의 맹목성을 로마 카톨릭의 맹목적신앙과 구별하였다. 주지주의적 신앙고백을 경계한것이다. 즉, 인간 이해의 한계안에 성령

간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여기서 본인은 믿음의 객관적 기초를 다루려고 한다.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신자의 주관적 경험을 말하지 않는다. 믿음은 신앙심에 근거하지 않고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곧 믿음이 근거하고 있는 지식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안에서 행하신 일을 효력있게 적용하십시오로 가능한 지식을 의미한다.

IV.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

기독교강요의 접근방식은 사도신경을 근간으로 한 칼빈의 구조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 기독교강요의 접근방식을 다음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고백은 옛 신앙에서 나왔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요 신뢰인 이 믿음이 성령의 일차적인 사역이다. 성령은 성부의 말씀인 성자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긴다. 이로써 삼위 교리가 설교에서 구체화된다. 만약 이런 성령론이 개신교회의 발견이라면, 개신교회의 믿음론(신앙론)에 고대 교회의 삼위론과 기독교론 교의가 초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⁸⁾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칼빈이 믿음의 기초로서 "삼위하나님의 사역"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칼빈은 신자의 믿음이 '경험'보다 '지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지식에 대한 혼란과 의심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신자가 갖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지만 칼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안에서 행하신 삼위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신뢰할 것을 주장한다.³⁹⁾

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다. Inst., III. 2. 5.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다." Inst., II. 2. 18-21. '인간 이성의 한계에 관하여'를 참고하라.

38) 유헤무, 81. 칼빈은 자기들의 주장, 이신칭의의 교리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옛신앙의 새로운 이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신경해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A. 기독교론적 접근

칼빈은 기독교강요 2권에서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다. 칼빈은 그의 신학에서 존재론적 신론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는 속죄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시켜서 다루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 것은 이 한가지 목적, 즉 우리들 자신으로서는 정죄를 받아 죽고 멸한바 되었으므로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라는 유명한 말이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의와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그에게만 구해야 한다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⁴⁰⁾

1.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음

칼빈은 죄인들의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앞서 공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원수였다는 사실이 당연했다는 것을 먼저 보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는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공포에 얻어 맞아 압도당하기 전에는 우리의 버릇은 하나님의 공흠 가운데 있는 생명을 열심히 파악하는 일이나 또는 그에 당연한 감사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이 되어 있고 그의 손은 우리를 멸하려고 무장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리스

39) 청교도들은 경험적인 증거를 나열해서 자신을 살펴보도록 했다. 이것은 칼빈의 예정론을 신봉한 데서 온 것이다. 그들은 예정론을 신봉하고 이것을 근거로하여 택자와 비택자의 구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칼빈은 오히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예정론을 다루고 있다.

40) Inst., II. 16. I II권 16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주의 직분을 이루신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및 승천을 다루고 있다.

도 안에서만 그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⁴¹⁾

칼빈은 그리스도밖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묘사하고 있다. 기독교강요 I권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은 무한정 거리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²⁾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앞에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분노에 합당한 불의가 우리 속에 남아 있다.⁴³⁾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과 영원한 죽음이 임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없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있어야 했는가를 거의 알 수 없었으려니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총을 과소 평가할 수밖에 없다.⁴⁴⁾

2. 구속주(Redeemer)의 직분을 이루신 그리스도.⁴⁵⁾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애 전체에 걸쳐 행하신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더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41) Inst., II. 16. 2.

42) 칼빈은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특권을 주셨고, 지금은 그의 교회에 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하여 이 평범한 증거들 이외에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표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Inst., I. 6. 1.

43) Inst., II. 16. 3.

44) Inst., II. 16. 2.

45) 칼빈은 앞서 Inst., II. 15.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그가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라는 세 가지 사항을 다루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확고한 근거를 찾고 그리하여 그 안에서 안심을 얻기 위하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직분은 세 부분이라는 원칙을 확립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신 일을 다룰 것이다.

성경은 이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독특하고 고유한 것으로 돌리고 있다.⁴⁶⁾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밑바닥까지 심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것이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순서대로 옮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한 구원의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⁴⁷⁾ 바울은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해서 “그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하였다(빌 2:7-8).

죽음 : 그리고 진실로 죽음 그 자체에 있어서까지 그의 자발적 순종은 중요한데 이는 자발적이 아닌 제물은 의를 위하여 아무 유익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않고 일편단심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바치지 않았던들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⁴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보상을 다 치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상의 제물로서의 죽음을 아버지께 드리셨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만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세숫대야 역할을 하였다.⁴⁹⁾

이 중보자는 우리의 비참한 형편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체험하였다(히 4:15). 그리스도께서 연약하다고 한 것은

46) Inst., II. 16. 5.

47) Inst., II. 16. 5. 웨스터 민스트 소요리 문답에서 조리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세직분을 이루시는 방법으로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와 ‘높아지신 그리스도’로 분류하고 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시되 비천한 지위에 나서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사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지낸바 되어 얼마동안 사망의 권세아래 거하셨던 것입니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48) Inst., II. 16. 5.

49) Inst., II. 16. 6.

폭력이나 필연에 눌러 강제로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를 위한 사랑과 긍휼로서 이끌려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그의 권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싼 댓가를 치루고 얻게 되었음을 실감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다.⁵⁰⁾

부활 :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충족되었으며 저주는 제거되었고 형벌은 완전히 치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를 거둬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벧전 1:3).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서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 등장한 것처럼 죽음을 이긴 우리 신앙의 승리 역시 그의 부활에만 있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그의 십자가에의 참여에 좌우된다고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의 부활로부터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롬 6:4).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을 통하여 의로 거둬나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⁵¹⁾

승천 : “하늘에 오르사” 주님께서서는 친히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니라”(요16:7)라고 증거하셨다. 즉, 그는 그가 떠나지만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더원하는 방법으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하며서 그의 육신적 부활에 대해 위로하고 있다(요 14:18-19 ; 16:14). 왜냐하면 그 때가 되면 그들은 더 확실한 체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은 신자들에게는 복된 삶 뿐아니라 복된 죽음까지 충분한 것임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승천에 의해 그의 육체적인 임재는 우리의 눈에서 사라졌지만(행1:9) 그것은 신자들이 지상 순례 생활동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효과적인

50) Inst., II. 16. 12.

51) Inst., II. 16. 13.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다.⁵²⁾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의 목적은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이 그의 위엄을 우러러보게 하여 그의 손아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명령을 순응하고 그의 힘에 복종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앉는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심판 보좌에서 주재(主宰)한다는 것 외에 다른 뜻은 없다.⁵³⁾

재림 :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현재 임재하고 있는 권능에 관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그의 나라가 말하자면 육신의 비천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입증될 그리스도의 가시적 임재를 주목하도록 신앙에 요구될 것은 옳다. 왜냐하면 그는 승천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시적 형태로서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며(행 1:11, 마24:30) 말할 수 없는 그의 나라의 위엄을 가지고 썩지않는 광채로서 신성의 무한한 권능으로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칼빈의 믿음의 기초와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주의 사역을 다루었다. 신자의 두려움의 한계도 그리스도의 사역의 밖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신자의 두려움을 칼빈이 다룰 때 그리스도의 속죄주로서의 사역은 그 보증이요 기반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신자가 겪는 두려움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신 구원을 더욱 드러내며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된다.

B. 구원론적 접근 (성령론적 접근)

이것을 구원론적 접근이라고 한 것은 회개와 믿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회개와 믿음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다.⁵⁴⁾ 여기서는 구원의 서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믿음과 회개를 다룰려고 한다.⁵⁵⁾

52) Inst., II. 16. 14.

53) Inst., II. 16. 15.

54) 각주 3을 참조하라.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유익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사적으로 쓰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빈곤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유익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며 행하신 일은 모두가 우리에게 무용, 무가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⁵⁶⁾

칼빈은 성령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주시는 띠(bond)로 소개하고 있다.⁵⁷⁾ 그리스도께서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교사의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그의 몸된 전체를 위해서였는데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권능이 복음을 계속 전파해 나가는데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⁵⁸⁾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부터 그의 몸된 교회의 사역에까지 연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령은 힘있게 감화시킴으로써 우리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더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과 동기부여에 의해 행동하게 된다.

1. 믿음

믿음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이다. 믿음에 의해서만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 바울은 엡1:13에서 성령을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오도록 노력하시는 내적인 교사로 본다.⁵⁹⁾

55) 믿음은 구원의 서정가운데 일부분이다. “성령에 의한 조명은 신생(新生)의 한 부분이다. 이처럼 신앙은 그 원인인 중생에서 유래한다.” 유태무, 447. 여기서서는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여기는 믿음과 회개를 다룰 것이다.

56) Inst., III. 1. 1.

57) Inst., III. 1. 1.

58) Inst., II. 15. 2.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와 길은 하나님이지자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⁶⁰⁾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해 버리면, 아무런 믿음도 남지 않게 된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선포하는 복음을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⁶¹⁾

믿음의 정의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부성적 은총과 돌보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다.⁶²⁾ 우리는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인간의 마음은 오직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고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에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 된 것이다.⁶³⁾

2. 회개

회개는 믿음의 열매이다. 복음 전도를 통해 죄가 용서됨을 알리는 목적은 죄인들이 사탄의 횡포와 죄의 멍에와 악의 비참한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⁶⁴⁾ 회개는 우리

59) Inst., III. 1. 4.

60) Inst., III. 2. 2.

61) Inst., III. 2. 6.

62) 나용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개설*,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95.

63) Inst., III. 2. 7.

64) Inst., III. 3. 1,2.

의 생활을 참으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순수하게 또 진실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향하는 것이다.⁶⁵⁾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회개를 계속해야 한다. 회개는 두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죽임은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영혼의 슬픔과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영혼의 슬픔과 두려움이다. 살림은 죄의식으로 절망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즉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이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다.⁶⁶⁾

3. 믿음과 말씀의 관계

믿음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리고 말씀의 증거로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의 마음은 허무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굳게 잡지 못하고 너무 우둔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항상 보지 못한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照明)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힘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성령으로 조명을 받는 것은 부족하다.⁶⁷⁾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는 것같이,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지성고 마음은 높이 들려 우리의 오성을 초월한다. 그 때에 영혼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 이전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었던 그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응시하게 된다.⁶⁸⁾

65) Inst., III. 3. 5.

66) Inst., III. 3. 3.

67) Inst., III. 2. 34.

68) Inst., III. 2. 34.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구원론적 접근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령이 없이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신자의 두려움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의 관점에서 구원과 삶을 통찰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말씀에 조명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사 말씀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촉구한다.

C. 예정론적 접근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에서 예정론은 구원론의 결론부분에 위치한다. 칼빈이 그의 신학에서 예정론에 준 위치는 그것의 기독교적 삶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⁶⁹⁾ 칼빈은 실제적인 기독교의 관점에서 예정론에 접근하였다. 그의 출발점은 신론이 아니라 교회의 현실에 관련되어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이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은 일상적인 기독교신앙의 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는 그것을 또한 실존세계의 설명하기 어려운 폭넓은 신비의 일부로 보았다.⁷⁰⁾ 예정에 관한 그의 가장 강력한 주장의 하나인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에서 그는 그 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이 큰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같이 단순히 가시돋힌 시끄러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나, 아무 유익도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하는 공론(空論)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봉사생활에 특별히 도움을 주는 건실한 논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신앙안에 굳게 세워주고, 겸손하게 훈련시켜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경탄하게끔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런 선하심을 찬양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린 귀를 하나님의

69) John H Leith, 133, 138.

70) Ibid., 132.

선택하시는 소리에 기울이는 것보다 신앙을 굳게 세우는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하신 뜻에 들어 있음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 동안 우리 마음에 그것을 인쳐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폭풍에 의해서 또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나 육적인 어떤 변화, 동요, 연약함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변경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때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것의 원인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도해주고 인도하시는 그 신앙으로 분명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확고히 붙잡을 때 우리의 눈은 훨씬 더 머리까지, 즉 그런 삶이 어떤 근원에서 연유되는지를 보게 된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복음이 약속해주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은 결코 우리의 확신을 지지해 주는 연약한 버팀대는 아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도록 선택되었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⁷¹⁾

‘예정론은 행위로 얻는 의를 믿는 모든 신념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려 버린다. 그리고 인간구원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 보여준다. 구원은 인간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떨리가지 미치는 사랑이다. 이런의미에서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예정은 동일한 교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교리의 원래 자리는 교회론에서 발견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선택받은 자의 총체이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연유되어 실존하게 된

71) Corpus Reformatorum : J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and Eduardus Reuss (Brunswick : C. A. Schwetschke et Filium, 1863-1897), vol. 8. cols. 260.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132에서 재인용

다는 사실은 그것이 세상의 육적인 것과 악마의 모든 관계에서 안전하게 지켜짐을 의미한다.’72)

“더욱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참으로 그 일원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멸망한다거나 악한 세력들에 짓눌려 파멸된다는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비록 온 세상이 그 궤도밖으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쇠퇴하거나 산산조각날 수 없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기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갈피를 못잡고 동요하다가 쓰러지기까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멸절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훌륭한 보호하에서 그들은 방황하고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잃어버린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73)

칼빈은 예정을 기독교공동체의 현존(existence)과 구원의 신적인 기초라고 설명한다.74)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은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이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변할 수 없는 계획은 본질적으로 이 영적 후손들에게만 구원에 이르게하는 효과가 있었다.”75) 신자의 두려움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예정론에서 더욱 밝히 드러난다. 예정론적 접근은 ‘신자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되심에서 보게 한다.

72) John H. Leith, 134.

73) Opera Selecta Joannis Calvini, ed. Petrus Barth and Guilielmus Nisel (Munich : Chu. Kaiser, 1926), vol. 1, p 87.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134-135에서 재인용

74) John H. Leith, 135.

75) Inst., III. 21. 7.

D. 성화의 단계로서의 "신자의 두려움"

1. 믿음의 불완전성

칼빈은 신자에게 있어서 의심과 믿음이 언제나 뒤섞여 있다고 했다.⁷⁶⁾ 그런데도 불신, 의심은 믿음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것은 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신자가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리켜 우리 삶의 원칙이라 할 수는 없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칼빈의 정의가 “이상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최고의 훌륭한 성도들의 삶에서도 철저히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⁷⁷⁾

칼빈은 믿음의 필수 선행조건으로서 “맹목적 신앙”을 인정하고 있다. 아직 신앙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그러한 믿음을 맹목적이라 부를 수 있다. 복음서 기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록 복음의 교훈에 조금도 감화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단지 기적으로 인한 경이감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약속한 메시아 정도로는 믿었다고 보도한다. 그것은 단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⁷⁸⁾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조차도 언제나 오류와 불신에 싸여 있다고 했다.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잡은 무지로 인해 제자들의 믿음은 어둠 속에 처해 있음을 증거로 제시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사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성을 발견한 후에야 결정적으로 믿게 되었다.⁷⁹⁾ 여기서 우리가 종합할 수 있는 것은 칼빈은 이른바 “객관적 관계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분명하다. 믿음은 개인의 자서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는 감성적 신비주의, 종교적 심리주의, 경건주의 등과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내용”을 묻지, 믿음의 “방법”을 묻지 않는다.⁸⁰⁾

76) Inst., III. 2. 4.

77) Philip C. Holtrop,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박희석, 이길상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p. 182

78) Inst., III. 2. 5.

79) Inst., III. 2. 4.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것은 저들 마음속에 사장(死藏) 되어 있었던 믿음의 씨앗이 그때에야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모습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

우리는 여기서 칼빈의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의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다. 칼빈은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의 구별에서 버림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정도로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 일시적인 신앙의 뿌리를 가질지라도 성경에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저 신비한 계시에도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스며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다.⁸⁰⁾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의 불완전성은 계시의 내용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있다. 신자가 지식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마음에 인식되어지는 전인격적인 이해에 있어서 불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한번 칼빈은 신자의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신지식에 대한 철두철미한 의존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자의 믿음은 불완전하다. 불완전의 요소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불완전성에 있다. 칼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믿음의 불완전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길 힘을 얻는다. 칼빈은 믿음과 말씀의 관계에서 그 불완전성을 극복하게 된다. 결국 신자가 갖는 주관적인 불완전성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한다. 이것은 참된 신자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나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임을 굳게 확신하여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근거로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약속해 주는 증거들을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 기대를 거는 사람만이 참된 신자이다.”⁸²⁾

2. 신자가 믿음의 영역에서 갖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다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자들은 서로 다른 것을 경험한다. 신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에도 자주 그들에게 임하는

80) Philip C. Holtrop, p. 181.

81) Inst., III. 2. 11, 12.

82) Inst., III. 2. 16.

불안으로 시련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로 자주 흔들린다.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시험은 너무나 거세어서 저 믿음의 확신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같이 보인다.”

여기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단호하다.

“확실히 우리는 믿음이 확실하고 확고한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의심의 기미가 없는 확증이나 어떤 불안에 의해 침식당하지 않는 확신은 상상할 수 없다.....진실로 우리는 신자들의 양심이 아무런 동요도 없이 평화로운 안식을 우리 고 있다고 결코 생각지 않는다.”⁸³⁾

칼빈은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여도 거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매우 좁은 범위 속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 대해 자비로우신 분인지 의심하면서 가련하게도 염려로 인해 위축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실로 위대하고 풍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마음 속에 꼼꼼히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과연 그들에게도 임할는지 혹은 그들이 그것에 이를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은 확고한 안전 속에서 심령을 강화시키기보다 불안한 의심으로 심령을 괴롭게 한다.”⁸⁴⁾

신자가 믿음의 영역에서 당하는 두려움은 한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칼빈은 언제나 신자의 믿음에 대한 주제를 세밀하게 다룰 때마다 확신과 두려움을 대조시키고 있다. 그 원인과 상태에 대해서도 실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신자를 실족케하는 두려움은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 유발되어질 수밖에 없다. 칼빈은 이러한 종류의 실족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83) Inst., III. 2. 17.

84) Inst., III. 2. 15.

“주님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당신 자신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자임을 논증하셨다. 최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부가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즉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마 11:6, 눅 7:23). 즉 주님은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심에 대하여 그 가운데서 단순히 인간의 본성으로 하여금 강하게 반발하게 하는 많은 점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책략에 의하여 복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념(疑念)을 품게 하려고 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장애가 당장에 일어날 것을 예지(豫知)하고 계셨다..... 이런 일은 주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는 일이 그에게는 운명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이다.”⁸⁵⁾

3. "신자의 두려움"의 원인

1. 믿음의 불완전성

“경건한 영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앞으로써 얻은 감미로움에 젖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 재앙을 인식함으로써 오는 쓰라림을 슬퍼하고, 한편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다른 한편 자신의 불의를 보고 두려워 떨고 한편 삶의 기대를 즐거워 하면서 다른 한편 죽음앞에서 전율한다. 이러한 변동은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현생에서는 불신앙이라는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고 신앙으로 충만되거나 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지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난다. 즉 육의 잔재 속에 잠자고 있는 불신앙이 일어나서 마음속에 잉태된 믿음을 공격할 때 생겨난다.”⁸⁶⁾

칼빈이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신자가 겪는 믿음의

85) John Calvin, *John Calvin의 신학논문*,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p. 170. “실족에 관하여”(1550). 칼빈은 여기서 실족을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86) Inst., IV. 2. 18.

불완전성은 곧 믿음의 명백한 지식과 연결된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불신앙에 빠지지만 그러나 믿음에서 완전한 단절은 일어나지 않는다.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의 불완전성은 동시에 항상 극복되어지며 명백한 지식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두려움

칼빈은 불신자가 갖는 두려움과 신자의 두려움을 구별시키고 있다. 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공포에 떠다. 이것은 불신앙에서 생기는 공포이다. 그러나 신자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갖는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별보다 더 두려워한다. 이러한 구별은 다음의 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계속 사랑하시면서도 놀랍게도 그들에게 노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것은 그분이 그들을 미워하는 태도를 취하시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육적 오만을 낮추고 나태함을 고치며 회개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분노를 그들로하여 놀라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이나 그들의 죄에 대해 노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자비로우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확신을 가지고 피난처를 찾아 그분에게로 피하기 때문이다.”⁸⁷⁾

4. 끊임없이 전투하는 신자.

칼빈이 믿음의 영역에서 갖는 신자의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자세는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칼빈은 이런 상황을 신자들이 본래 가졌던 불신앙과 부단히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더 분명하게 이것을 칼빈은 표현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인해 미혹 될지라도 우리는 그로 인해 믿음에서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불신앙의 책동에 자극을 받아 사면초가에 처해도 우리는 그것 때

87) Inst., III. 2. 12.

문에 불신앙의 심연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 믿음은 어려운 문제들로 포위되어 위기에 처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마침내 극복할 것이다.⁸⁸⁾

칼빈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가장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는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관점은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다.

“믿음은 이와 같은 공격들을 견뎌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강화한다.....경건한 자의 마음은 너무나 이상하게 번뇌와 괴로움으로 시달리 때에도 결국에는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는 것을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영혼을 고달프고 피곤케 만드는 모든 투쟁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준다.”⁸⁹⁾

3. 고후 7:11에 제시된 회개로서의 두려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저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별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칼빈은 이것들, 곧 간절함 또는 신중함과 변명과 분개와 두려움과 갈망과 열심과 징벌등이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할 지, 결과로 간주되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두려움’이란 말을 우리가 자기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엄하고 무서운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떨림이란 뜻으로 사용한다.

88) Inst., III. 2. 18.

89) Inst., III. 2. 21.

그런 때에 우리는 이상한 불안으로 고통하며, 이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며 앞으로 더욱 조심스러워진다.”⁹⁰⁾ ‘징벌’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며 자신의 죄를 예리하게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심판의 두려움에 충격받은 영혼이 체벌자의 역할을 맡아 자신을 벌해야 한다.”

죄를 무서워 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생각이 회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의 근원이라고 본다(고후 7:10). 우리가 형벌을 싫어할 뿐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고 혐오할 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부른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⁹¹⁾ 칼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벌을 일일이 묘사하는 이유는 고린도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같은 악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려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신자가 자신과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두려움은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일으킨다. 이런 두려움이 자신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게 한다. 또한 칼빈에게 있어서 이것은 두려움에 의한 비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다. 회개로서의 두려움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회개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다.⁹²⁾

4. 빌 2:12에 제시된 신자의 삶의 자세로서의 두려움

바울이 여기서 심각하고 간절한 두려움으로 강조하는 것은 게으름과 안일함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칼빈이 여기서 강조하고 경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교만이다. 이것은 다름과 같은 주석에서 잘 나타난다.

90) Inst., III. 3. 15.

91) Inst., III. 3. 7.

92) 칼빈, *신약성경주석* 제9권, (성성교재간행사, 1980), p153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결손을 낳고, 다른 하나는 주저함을 낳는다. 전자는 육신적인 방종과 나태함, 그리고 교만에 반대되는 것이고, 후자는 믿음의 확신과 반대된다.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자는 자기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 결코 방종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과 오히려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두려움은 양심의 평온함을 뒤흔들고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신을 갖도록 해준다.”⁹³⁾

칼빈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칼빈은 신자가 두려움으로 행하도록 명령받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다.

“나는 구원은 우리의 소명의 전과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유 선택에 따라 정하신 모든 것들의 완성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구원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복된 생명을 동경할 때에 완성된다고 말한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편에서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도록 예비해 주실 때에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아무 할 일도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밀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충동을 받아 기쁨으로 일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이다.”⁹⁴⁾

칼빈에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사는 신자의 삶은 신자의 구원의 분명한 표징으로 나타나진다.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로서의 두려움은 신

93)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제7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p 507-508)

94) Ibid., p 508.

자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받은 표징일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구원을 바라보도록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신자안에서 행하시는 분명한 증거로서 설명할 수 있다.

5. 올바른 두려움에 대한 이해

칼빈은 '위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자발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 또 두번째 죄가 있다. 그것은 곧 적어도 강요당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반항하며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는데서 생기는 '자발적인 두려움'에 감동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강요당하는 노예적 강제적인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혐오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다.”⁹⁵⁾

'자발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는데서 생긴다. 이 자발적인 두려움에 반대되는 것은 '강요 당하는 노예적이며 강제적인 공포'이다. 이것은 심판앞에서 어쩔수 없이 두려워 떠는 것이다. 올바른 두려움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굳세게 만든다. 불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예를 보고 그것을 자기들(신자들)에게 주는 경고로 생각하여 같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때에 신자들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다.....또는 자신의 가련한 상태를 반성하여 전적으로 주를 의지할 줄 알게되며, 주를 떠난 자신들은 어떤 사람보다도 불안정하며 덧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때에 신자들은 두렵고 떨림을 경험한다.”⁹⁶⁾

95) Inst., I. 4. 4.

96) Inst., III. 2. 22.

칼빈은 하나님의 존엄하심앞에 나아갈 때마다우리는 들음을 느끼며, 그 존엄하신 광채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며 넘어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 조심성있게 만드는 두려움이며,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 혼미한 마음이 하나님안에서 자신을 회복하며 낙심했던 마음이 그의 안에서 되살아 나며 절망에 빠졌던 마음이 그를 믿음으로 소생한다고 말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자의 두려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하나님의 위엄앞에서 깨닫게 함으로서 더욱 거룩과 순결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한다. 칼빈이 신자의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에서 결론 짓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나는 앞에서 한 말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우리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 중단되는 일이 있고, 질은 암흑과 같은 시험속에서 그 빛이 꺼지는 일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⁹⁷⁾

V. 결론

칼빈은 ‘신자의 두려움’을 구원받은 신자의 표징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아버지되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식한다. 이 지식에서 신자는 믿음을 얻으며 그의 신앙과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존시킨다.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자의 두려움은 칼빈의 믿음과 두려움과의 관계에서 기초하였고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칼빈에게서 더 나아갔고 칼빈이 가졌던 것보다 넘어선 것이다.

우리는 칼빈에게서 그리스도만을 지향하게 하는 원리를 발견한다. 칼빈은 신자 자신에게로 그 방향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지식으로 그 방향을 돌려 다시 그 계시하신 지식을 확고히 한다. 물론 칼빈은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분

97) Inst., III. 2. 24.

리된 것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여긴다. 그는 신자가 갖는 두려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즉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기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서 오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확신은 결국 두려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두가지 극단을 갖는 경향을 본다. 첫째는 지식에 의존하였으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올바른 표징과 기초를 두지 않음으로서 거짓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경험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심어주신 복음의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복음의 정확성과 신자의 믿음의 명확성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두가지의 관계는 깊다. 정확하지 않은 복음, 혹은 변질된 복음을 듣고 거짓된 위안속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명확성을 상실하고 있다. 칼빈은 신자가 됨으로서 겪는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살피고 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루기 꺼려하는 주제들이다. 오늘날 합리적인 상담과 심리학을 도입한 것은 때때로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십자가와 믿음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갈등과 영적투쟁은 심리학과 상담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다. 신자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건전한 표징으로서 주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이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다.

여기서 칼빈은 복음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강조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식을 기초로 신자의 믿음과 삶을 진지하게 다루었다. 칼빈은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속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심어두신 복음의 진리가 점차적으로 명확해지고 더욱 의존하게 만듦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앞서 말한 두가지 경향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불완전성과 이생에서 겪는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Allen Carden, *Puritan Christianity in America*, 청교도 정신, 박영호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trans. Ford Lewis Battles, LCC.,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 기독교 성문출판
사)

----- John Calvin의 신학논문,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 John Calvin, 신약성경주석(고린도후서, 빌립보서), (서울 : 성
서교재간행사, 1980)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칼빈의 삶
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eter Lewis, *청교도 목회와 설교*, 서창원 역 (서울 : 청교도 신앙사,
1991)

Philip C. Holtrop,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박희석, 이길상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Richard Baxter, *Cripplegate Exercises*

W. Stanford Reld, edited by,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이훈영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나용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개설,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